

작품 내용

제 목	복제소녀와 도플갱어
내 용	소녀의 별명은 ‘문학소녀’였다. 책을 사랑하는 소녀에게 제격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별명 뒤에는 남모를 버릇이 숨어 있었다. 어려서부터 타인을 흉내 내며 관심받기를 좋아했던 소녀의 버릇은 점차 남의 저작물로 향했다. 타인의 글을 제 것인 양 퍼 가고, 허락 없이 복제하는 판사(판박이) 행위가 반복됐다. 가끔 출처를 남기곤 하였지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 소녀의 버릇은 심해져만 갔다. 이제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 문학 속 인물들의 사상이나 행위까지 마치 빙의하듯 자신에게 복제하였다. 예를 들어, 은소홀의 《5번 레인》을 읽은 날, 소설에 과몰입한 소녀는 학교 복도 바닥에 배를 맞대고 팔을 휘저었다. “뭐 해?”라는 친구의 황당해하는 질문에 “수영선수잖아!”라고 당당히 외치던 소녀. 친구는 말문이 막힌 채 발길을 돌렸고, 소녀는 그날 이후 학교의 육상선수가 아닌 수영선수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렇듯 활자 속 주인공과 동화되기를 즐겼기에 사람들은 소녀를 문학소녀라 불렀다. 소녀는 이 별명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옆 반에 마치 자신을 ‘복제’한 듯 똑 닮은 전학생이 나타난 것이다. 신은영의 《상자 속 도플갱어》 속 이야기처럼, 가짜가 진짜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잔혹한 동화가 현실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소녀는 도플갱어에게 존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다. 그 전학생 역시 책을 사랑했지만, 소녀와 달리 늘 스스로 창작했고 인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했다. 친구들은 그녀야말로 진짜라며 소녀의 별명(문학소녀)을 전학생에게 주어버렸다. 순식간에 관심과 별명을 모두 빼앗긴 소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진짜는 나인데! 혹시 내 모습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여 날 왜곡시키는 건 아닐까?’ 허탈감은 곧 불안감으로 변했다. 소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기로 결심했다. 도플갱어가 잘못을 저지르면 똑같이 생긴 소녀에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도플갱어에게 뺏긴 관심과 별명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플갱어처럼 무언가를 만들어 낼 자신은 없었다. 다른 모습이 되는 방법조차 몰랐다. 고민 끝에 소녀는 가장 익숙한 방법을 선택했다. 남의 것을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다. 타인이 열심히 그린 그림을 SNS에 올려 자신이 그린 척하였다. 인기가 많아지고 모두가 소녀를 ‘그림 천재’라 불렀다. 또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 만든 물건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 도플갱어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되찾은 듯했다. 별명은 어느새 ‘천재소녀’가 되어 있었다. 이후 도플갱어와 마주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녀가 두려워했던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의 한 구절을 가져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의 끝없는 칭찬과 관심에 더욱 당당해졌다.
 달콤한 도용의 나날 속에서, 선생님의 질문 하나가 소녀의 뼈를 때렸다.
 “너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소녀는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남을 베끼느라 진짜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곧장 전학생에게 달려갔다.
 “왜 너는 따라 하지 않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전학생은 고개를 가웃했다.
 “왜 내가 따라 해야 하는데?”
 “넌 나잖아!”
 전학생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펼쳤다. 한 번도 읽어 본 적 없는 구절과 엉성한 실력의 그림이 빼곡했다.
 “이게 뭐야?”
 “내가 만든 창작물이야.”
 전학생이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내 것인 척하면 되는데, 귀찮게 직접 만들고 부끄럽게 자랑을 해?”
 숨겨왔던 속마음이 툭 터져 나왔다.
 “내가 노력하여 만든 순수 창작물이라니, 멋지지 않니? 창작물을 만들 때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돼. 참 보람 있는 일이야.”
 전학생은 행복한 꿈을 그리듯 기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있는 캐릭터와 시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도 했어. 내가 만든 창작물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지킬 수 있지.”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의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소녀는 왠지 부러웠다.
 “그러니 복제를 멈춰줘. 그건 저작권 침해야.”
 그 말에 소녀가 버럭 소리쳤다.
 “뭐? 안 들키면 되지! 그리고 모를 수도 있잖아!”
 전학생이 고개를 저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안 들킨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며 저작권 인식을 높여봐. 그러면 다른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만들 작품도 지킬 수 있겠지. 너도 한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건 어때?”
 소녀는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와 복제했던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창작을 다짐했다. 하지만 빈 화면을 마주하자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스스로 창작하는 법을 잊은 채, 대중의 관심이 떠날까 봐 조급함만 밀려왔다.
 결국 손은 다시 익숙한 책장으로 향했다.
 ‘딱 한 번만.’
 소설 속 명언을 훔쳐 올린 순간, 무겁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며 익숙한 찬사가 쏟아졌다.
 그 순간, 소녀의 몸이 종이처럼 납작해지며 모니터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소녀는 복제된 게시물들이 사방에 떠도는 SNS 세계 한복판

에 서 있었다. 하늘에서 마우스 커서가 날아와 먹살을 잡자, 누군가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Ctrl+ C, Ctrl+ V.”

소녀의 존재 자체가 복제되어 무수히 박제되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외계인이라 조롱받고, 영상에서는 누군가의 숨겨진 딸이라며 왜곡됐다. 허락 없이 배포되고 자극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난도질당하는 순간, 소녀는 견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복제하고 왜곡하는 거지?’

비명을 지르며 나를 혈값에 퍼뜨리는 근원지를 찾아 달렸다. 마침내 작은 화면 너머로 나를 끊임없이 복제하고 있는 주동자의 실체를 마주했다.

화면 너머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영혼을 복제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소녀 자신이었다.